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36. 흰 옷 입은 큰 무리

2013. 09. 0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인 맞은 자의 144000에 대하여 몇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들을 살피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7:9~12]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 지난 시간에 144000명과 7:9절 이하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동일인들인가 다른 그룹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끝났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다음 구절들을 살피면 어떻겠습니까?

답: 이 14400명에 대한 것이 상징이나, 실수냐 하는 문제에 더해서 9절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사람들인가 다른 그룹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실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이 있고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두 그룹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대 환난 기간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이지만 숫자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에녹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구원받는 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그룹은,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 날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미 말한 대로 여섯째 인을 떼어낸 역사적 시기에 특별히 인을 맞은 무리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룹입니다. 저는 역사주의적 해석으로 이것을 지지한다고 이미 말했지요.

2. 그런데 목사님은 앞으로 생각할 구절을 보면 왜 목사님이 그것을 지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절이 그 주장을 지지하게 한 것입니까?

답: 7:15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과 닮았지요? 3:12절과 대조해봅시다.

[계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사실은 144000인에게 친 인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야기 했지요. 그들은 또 성전 기둥이 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7:15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시대부터 연관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세 장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편지와, 여기 7장의 장면과 14장에 144000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대조해보니까 저의 견해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이런 사실을 두고 저는 상징적 숫자인데, 그들은 여섯째 인을 떼는 시대와 일곱째 인을 떼는 시대 사이에 있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가 절대로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설명들을 대조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3. 설명을 들으니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목사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계시록의 기록 패턴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들었다, 다음에는 보았다. 즉 같은 사실을 처음에는 듣고 그 들은 것을 다음에는 보이는 형식 말입니다.

답: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형식이지요. 1장에도 그렇지요. 1장 10절에는 들었습니다. 12절에는 보았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지요. 여섯 인을 떼는 장면에는 들으니, 보나의 형식이 반복되지요. 물론 듣는 것은 오라 하는 음성이었고 보는 것은 그 음성으로 제시된 내용이지요. 하지만, 같은 형식입니다. 똑 같이 7장에도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4000이었고, 그 후에 보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기록 형식을 생각해도 144000이나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동일한 무리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44000인을 실제로 본다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또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환난도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이 있지요. 예수께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그날 큰 환난 후라고 하셨지요? 그 환난이 1776년에 끝났다는 것은 천연계 현상을 이야기할 때 말씀 나누었지요. 큰 환난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모든 환난이라고 설명하면 또 그렇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7장이 6장 다음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삼입적 광경이라고 볼 때에 인치는 일은 큰 환난 후에 있는 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 상으로 합리적이 아니겠어요. 이 여러 가지 이유 저는 동일인이라고 보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4.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144000과 셀 수 없다고 표현된 많은 무리는 동일인이라는 견해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답: 그렇게 합시다.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한들 영적 이해나 유익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깐요. 이제 오늘 봉독한 9절부터 흰 옷 입은 많은 무리에 대한 기록인데, 우선 9절을 다

시 읽고 이야기를 나누시다.

[계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144000과 동일인으로 보면 이 표현으로 144000인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 주는 기록이 아닙니까.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흰 옷의 의미는 14절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흰 옷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듣고 보는” 기록 형식을 말하면서 두 무리가 동일인들이라는 설명을 할 때 말했지요.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말은 항상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산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4에는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장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그 말도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22:14에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과도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이 흰 옷 입은 무리, 큰 환난에서 나온 144000인은 어린양의 보혈의 공로를 언제나 자신들에게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5. 흰 옷을 입은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네요. 그러면 종려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답: 일반적으로 종려가지는 승리나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한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에 종려나무를 수놓았고, 성전 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지요. 그리고 시편 92편에는 의인의 행통함에 대하여 종려나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시92:12~15]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13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14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15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와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의인이라는 표가 되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를 수행하는 존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그들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차림새가 종려가지를 든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6. 예, 시92:12~15 말씀이 종려가지를 든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답: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합시다. 처음에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읽는 것이 좋겠지요.

[계7: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나 종려가지를 들게 된 것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데, 글썄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지요. 믿음이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무슨 선을 행한 것이나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보탬이 되는 줄로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양이 주신 선물입니다. 거절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찬송이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와야 합니다.

7. 이들의 이런 고백적 외침에 천사들이 화창을 하는군요.

답: 예,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화창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계7:11,12]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것은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것은 5장에 어린양을 찬양할 때 가사와 같은 거의 내용이지요. 7중 찬양입니다. 모든 천사는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 주위에 서 있습니다. “주위”라는 말은 “퀴클로”인데요,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둥그렇게 둘러선 것을 뜻합니다. 5장에는 둘러섰다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둥그렇게 둘러섰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서 있는 것 같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그들이 둘러선 가운데 두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지요.

8. 찬양의 가사가 5장에서 읽은 것과 같아 보입니다.

답: 그렇지요. 5장에서는 어린양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찬양 가사가 7중 찬양입니다. 5:12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서는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7중 찬양인데,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장면을 대조해보도록 합시다.

모든 천사가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이 10절이잖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적 선언을 하는데 대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5:12절의 찬양과 대조해보면 이런 특징이 있네요. (1) 5:12, 13의 찬미는 어린양에게 바쳐졌으나 역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2) 찬양 내용 중에서 5:12의 “부”가 여기서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3) 또 “세세토록”이란 말이 삽입되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4) 또 두 번의 “아멘”이 사용된다. 처음의 “아멘”은 큰 무리의 찬송에 대한 응답이며 마지막 “아멘”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는 부를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미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그 부를 회복하셨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9. 찬양의 내용이 7중이라는 것은 같고 또 여섯 가지는 내용도 같은데 감사와 부가 다른 이유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합당한 설명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장로 중 한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을까요?

답: 기록된 상황으로 봐서 왜 물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첫째는 요한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물었다고 생각되고, 둘째는 이들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현재 요한이 환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상을 요한이 알므로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유배지에서 인내할 것이며, 환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환난에 대하여 제가 흰 옷 입은 사람들과 144000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한 것처럼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반적인 환난을 뜻한다고 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특별한 환난을 뜻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큰 환난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마24:21,22) 여기 큰 환난이라고 할 때 정관사 “테스”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임을 나타내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환난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큰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그 환난이라고 말했을 때에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환난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미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사실이 다 흰 옷 입을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을 겪은 것을 나타내고, 여섯째 인, 곧 천연계 현상이 일어난 후에 인치는 일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 사건과 잘 들어맞는 것이지요.

10. 예, 목사님,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런데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요한이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려도 되는 것입니까?

답: 그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존경하는 호칭으로 부른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호칭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신이 알리이다라고 말했잖습니까.

11. 성령님도 주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많지만 성령을 주라고 부른 것은 제 성경으로는 읽지 못했는데요?

답: 계시록 내용과 그리 상관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계시록에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무관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주님이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공동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고후3:18입니다. 한 번 찾아봅시다.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는 끝 문장,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을 봅시다.

[고후3:18]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 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기는 끝 문장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성령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도 같은 문장입니다. 헬라 원문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무튼 장로에게 “내 주여”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사도로서 계시 중에 보는 장로에게 그렇게 존칭을 쓰는 것은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된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목소리를 보태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흰 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